

현대 착용한복의 색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:

1999년과 2001년 비교

유혜경 · 김찬주 · 홍나영 · 이주현*

인천대학교 교수 · 인천대학교 교수 ·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· 연세대학교 부교수*

한복은 우리 고유문화의 중요한 양식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, 현대에서도 한복은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하고 있다. 이 연구에서는 현대생활 속에서의 한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색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.

1999년과 2001년에 전국 5개 도시(서울, 대전, 광주, 부산, 제주)에서 봄(4-5월), 여름(7-8월), 가을(9-10월), 겨울(11-12월)의 각 계절마다 두 주말에 걸쳐 한 장소에서 2-3시간씩 관찰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. 관찰장소는 각 도시마다 전통문화거리, 예술의 거리, 결혼앨범을 위한 야외촬영장소를 사전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. 그리고, 결혼식장은 최고급, 고급, 일반 수준으로 나누어 지방 도시에서는 세 예식장에서, 서울에서는 일반예식장은 강남과 강북의 두 군대를 포함하여 네 곳의 예식장에서 촬영하였다. 그리하여, 수집한 사진들 중 정면으로 전신이 나타나는 여성 사진만을 선택하여 1999년 사진 477장과 2001년 사진 439장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.

한복의 색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,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. 첫번째는 색조(tone)에 의한 분류로, 전체적인 색감에 따라 pale, light 등의 11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다. 두 번째 방법은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(hue) 매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. 즉, 어떤 색 저고리에 어떤 색 치마를 착용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으로 동색 배색과 이색 배색으로 나누었으며, 색저고리와 치마의 색은 먼셀(Munsell) 색상환의 기본 10색에 흰색, 회색, 갈색을 더하여 13개 종류로 나누었다. 세 번째 방법은 앞의 두 방법이 서양의 색채 분류법임을 고려하여, 한복만을 위한 고유 분류방법을 시도하였다. 이 방법에서는 우선 한복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grouping을 시도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집단(group)으로 분류된

한복들의 특성을 찾아내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.

이러한 분석 결과, tone에 따른 색의 변화를 보았을 때, 1999년에는 pale에 속한 한복들이 가장 많이 착용되었고(21.8%), 전반적으로 높은 명도가 강세를 보였다. 그러나 2001년에는 이런 색조들은 퇴조하였고, dark(15.6%), vivid (15.3%) 쪽으로 중심이 옮겨졌다. hue에 의한 배색을 보면, 단색 배색은 1999년과 2001년 모두 붉은 색 계열색상(R, YR, RP)이 많았고 특히 개별빈도로는 고명도의 밝은 분홍색상이 가장 높았다(12.0%, 10.9%). 이색배색은 1999년과 2001년 모두 저고리는 흰색과 파랑색이, 그리고 치마로는 빨강과 파랑색이 많았다. 특히 흰저고리와 남색 치마의 배합은 가장 높은 빈도(14.2%, 16.0%)를 보였다. 이외 1999년에는 남색저고리와 흰치마도 선호되었으나 2001년에는 눈에 띄이게 줄어들었다. 노랑색과 보라색, 회색과 갈색은 거의 착용되지 않았다. 마지막으로 한복색에 대한 고유분류방법을 시도한 결과, 분홍계열과 파랑계열의 집단과 다홍치마/노랑저고리, 녹색홍상, 감색치마/옥색저고리의 전통 배색 집단, 이런 배색에서 위아래 색을 바꾸거나, 전통색과 유사한 다른 색으로 배색한 집단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었다. 그런가 하면, 치마저고리 모두 아주 연한색을 입거나, 또는 진한 색(주로 빨강/꽃분홍)의 집단도 있었다. 특히 2001년에는 감색치마/옥색저고리의 배색뿐만 아니라, 녹색홍상, 다홍치마/노랑저고리와 같은 전통 배색에 따른 한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.

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했을 때, 전체적으로 한복의 전통성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. 또한, 한복에서는 노랑계열 색이 착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, 자주 사용되는 배색도 제한되어 있어서, 한복에서는 우리 고유의 색감과 미적 취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.